

# '푸른 숲이 학생을 반기는 학교'

## 인천동부초,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자연체험학교

인천동부초등학교(교장 김양일)는 2016학년도 12월 학년말을 맞아 6학년 학생들에게 졸업 기념으로 학교에서 직접 키운 감나무 홍시를 맛볼 기회를 선물했다. 이는 6년간 지내온 학교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고 학교 사랑의 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이다. 졸업생 모두에게 이러한 선물이 가능한 이유는 인천동부초등학교가 도심 속에 위치했지만 보기 드문 전화적 체험학교이기 때문이다.

인천동부초등학교는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소재한 도시학교이지만 등·하굣길이면 캄캄기로 소문난 학교이다. 교문 안쪽 좌우에 대나무숲과 은행나무, 개나리, 철쭉이 울창이 있고 화단 곳곳에 꽃 잔디와 각종 화초가 가득 심겨 있다.

신관 급식소 앞에는 파피루스나 물베추, 들수선, 들수세미 등 평소어 접하기 어려운

수생식물 관찰장이 자리해 있어 식사 수, 산책 코스로 적격이다.

또한, 학년별 재배 텃밭에는 시식할 수 있는 각종 채소를 심어 해당 학년 학생들이 직접 가꾸거나 수확할 수 있게 배려했다. 이외에도 연꽃이 자라는 미니 연못이 있는 통산에는 꽃 잔디와 각종 과실수를 가꾸고 토끼장을 조성해 학생들이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먹이를 주며 자연스럽게 동물을 키우는 즐거움을 느끼게 했다.

이 외에도 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한 자연 친화적 교육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연중 대상 학년을 탈피해 농촌체험학습, 과학 융합 및 자연관찰수업 등을 실시하고 가을에는 추수나 탈곡체험 및 만리수레 만들기 체험 등을 실시했다.

지난 3월 1일 자로 부임한 이래, 자연 친화적 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온



김양일 교장은 "학생들이 자연을 벗 삼아 생명을 사랑하고 환경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기를 때 학생들의 진정한 창의·인성교육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고 믿는다. 앞으로도 특색있는 자연 친화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해 도심 속의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영선 기자 as@**

# 창단 후 처음 느낀 기쁨

## 인천안산초 농구부,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농구부 금메달 획득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동현) 지정 남자 초등 농구부 운영학교인 인천안산초등학교(교장 오장석)가 지난 5월 31일 강원도 백령스포츠클러스터에서 열린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대구칠곡초등학교에 39대 8로 대승을 거두고, 창단 첫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거는 기쁨을 누렸다.

골 필과 자유투로 각각 12점을 올린 유운상(6학년, 센터, 175cm)과 김유진(6학년, 센터, 182cm)을 필두로 한 번도 리드를 뺏기지 않고, 여유 있게 승리했다.

인천안산초 농구부는 2005년 6월에 창단했으며, 창단 12년 만에 인천 대표로 전국소

년체육대회에 처음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하는 우승의 쾌거를 달성했다.

오장석 교장은 "그동안 피땀 흘려 훈련한 선수들과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해 첫 인천 대표로 선발되자마자 금메달을 따고 온 선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견하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천안산초가 농구 명문으로 자리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전남 영광에서 치러진 제7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농구부에서도 준우승을 하는 등, 만년 하위 팀에서 전국 최강 팀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모습을 보여줬다. **인영선 기자 as@**



## 꼬마 나눔이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 인천명원초 1학년, 나눔 프로젝트 학습

인천명원초등학교(교장 최형목) 1학년 학생들은 9월 2일부터 12월까지 나눔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했다. 나눔과 기부를 주제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나눔과 기부 활동을 실제 경험할 수 있도록 의도한 이번 학습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참여했다.

시작일인 9월 2일에는 학부모 참여수업을 실시해 70여 명의 부모가 모인 장소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용돈을 모아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부모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 더욱 의미가 있었고 효과도 좋았다.

이후로 4개월간 학생들은 자신의 용돈을 모아 사랑의 저금통에 저금을 했다.

지난 12월 9일에는 지금까지 모았던 돈을 어예 씨 학생들과 교사를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협의해, 그 결과 인근 보육원에 기부하기로 했다. 자신을 또래의 힘든 아이들

을 돕고자 의견을 모은 것이다.

김태우 1학년 부장교사는 "어린 1학년 학생들이지만 미리미리 나눔과 기부 공부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실천한 것을 바탕으로 배려하고 나누는 활동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다. 부끄러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형목 교장은 "명원초의 학교 교육 비전은 함께 나누고 실천해 꿈을 찾아가는 행복 공동체이다. 나눔과 배려, 존중은 미래사회에도 꼭 요구되는 핵심역량이다. 이번 1학년의 나눔과 기부 활동에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과 기부, 배려 경험 활동을 학생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인영선 기자 as@**

## 발전된 내 모습 보고 싶다

### 남인천여중, 영재학급 창의산출물 발표회

남인천여자중학교(교장 최계열)는 12월 6일 영재학급 창의산출물 '과학 창의의 정원' 발표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 전 학생들은 '과학 창의의 정원'이라는 대 주제 아래 모둠별로 창의적인 산출물을 연구해 발표했는데, 특히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관련 12개의 실험을 구성해 계획한 작품 '봄이 담긴 그곳'이 큰 관심을 받았다. 이 작품을 발표한 2학년 학생은 "창의산출물을 완성하기까지 계획수립, 시행착오 등의 과정을 겪으며 더 탐구해 보고 싶은 분야까지 생겼다. 내년에는 더 발전된 창의산출물을 발표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관조 작품으로 Fame Lab 산출물, 남부교육지원청 영재학급 산출

물, 민주시민 주장발표회 산출물도 함께 발표했는데 영재학급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 능력과 소양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최계열 교장은 "학생들이 창의 산출물 발표회를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배움을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인천여중은 중학교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수학·과학 분야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2017학년도에는 눈송이 영역을 포함한 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재학급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영선 기자 as@**

## 노래로 배우는 영어! 신나고 즐거워요!

### 인천산곡남초, English Song Festival 개최

"Seven days in a week! What? Seven days in a week!"

"Sunday, Monday, Tuesday..."

강당을 가득 채운 신나는 비트 음악에 맞춰 율동 노래를 부르는 3학년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하면서도 밝다. 빠른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손뼉을 치며 큰 소리로 부르는 노래에 자신감과 즐거움이 가득하다.

인천산곡남초등학교(교장 김현숙)에서는 12월 5-9일까지 'English Song Festival Week'를 운영했다.

이 주간동안 3-6학년 학생들은 아침 방송을 통해 생활영어 표현이 가득 담긴 영어 노래를 접하기도 하고, 영어책 읽기 대회에 참가해 책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큰 소리로 실감나게 책을 읽으며 영어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그리고 English Song Festival Week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English Song Festival이 금요일에 열렸다.

English Song Festival은 한 주간 영어 시간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배운 노래를 학년별로 무대 위에서 발표해 보는 시간이다. English Song Festival은 학년 전체가 함께

부르는 여는 노래로 시작해 달는 노래로 끝맺는다는 노래와 달는 노래 사이에는 학급별 무대가 열린다.

학급별 노래는 학생들의 영어 수준과 발달 단계를 고려해 저학년은 'Finger Family', 'Do Re Mi Song'과 같이 간단한 표현이 반복되는 쉬운 노래를, 고학년은 'Let It Be', 'All About You' 같은 다소 어려우면서도 다양한 영어 표현이 풍부한 노래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정했다.

English Song Festival에 참가한 5학년 김모 학생은 "우리 반은? Count On Me를 불렀어요. 처음에는 가사를 잊었고 외워 부르는 것이 잘 안 됐지만, 하루 부르다 보니 어렵지 않았어요. 노래 내용이 좋아서 어른이 돼도 잊지 않고 부를 거예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6학년 이모 학생은 "영어 노래를 부르니까 어렵고 더 표현도 없어서 술술 나오요. 이번 기회에 다른 반이 부른 노래도 익혀서 영어 실력을 속속 늘려야겠어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인영선 기자 as@**

**낙지요리전문점**

**행복한 낙지**

3가지 맛으로 골라드세요!!!

1. 화끈하게 매운맛
2. 감칠맛나게 거부맛
3. 순하게 안매운맛

유식은 건강입니다  
저희는 좋은재료와 정성으로

가족모임 단체모임 회식회식

본점  
인천시 연수구 정방로 171, 1층 (옥련동) 흑현초교 청문암  
예약문의 (032)834-7740 단석식 및 대형주치장반비

**1,000원부터**

**행복한 낙지**

산낙지전모양   산낙지찜

산낙지전골   산낙지찜판

모든 메뉴 포장

막걸리에 파전도 준비되었습니다

834-7740



## 인천영선초 '제4회 영선 어린이 재능 발표회'

인천영선초등학교(교장 강희주)는 12월 1-2일 이틀간 다목적실에서 3-6학년 학생 중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갈고닦았던 재능을 발표하고 뽐내는 자리이자,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펼치는 '꿈! 깨! 행복! 제4회 영선 어린이 재능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꿈! 깨! 행복! 제4회 영선 어린이 재능 발표회'는 3학년 학생의 'River Flower In You' 피아노 연주로 시작해 플루트 연주, 난타, 무용, 비이클링 연주, 마술,

음악 동화를 비롯한 색깔된 물리기, 첼로 연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이어졌다. 또한, 비엔 일과에도 많은 영선초 학부모들이 재능발표회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강희주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정성껏 준비한 뜻깊은 재능발표회가 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 이번 재능 발표회가 개인의 소질을 개발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꿈과 끼를 펼치는 계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영선 기자 as@**

